

Vol. **118**

2023년 9월

해양환경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사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총 괄 박한선 실장
-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
- 발행인 김종덕 원장
- 발행처 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
해사산업연구실
-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
301번길 26(동삼동)
- TEL. 051-797-4800
- FAX. 051-797-4810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IMO 선박재활용 협약 실효성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

IMO, 선박재활용 홍콩협약의 중요성 홍보

- ▶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협약은 운항 수명이 다한 선박이 안전하고, 인간과 환경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범으로 역할^{a)}
 - ‘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국제협약(홍콩협약)’은 2023년 6월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가 협약에 가입하면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25년 6월부터 발효 예정
 - IMO는 보편적인 선박재활용 규제의 필요성과 홍콩협약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게시
 - 세계 선박재활용의 대부분은 방글라데시, 중국, 인도, 파키스탄, 튀르키예의 5개 국가에 의해 수행되며, 이중 방글라데시, 인도, 튀르키예는 홍콩협약 당사국임
 - IMO는 세계에서 선박재활용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홍콩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노르웨이의 자금지원 프로젝트(SENSREC: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in Bangladesh)를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 지원
 - 홍콩협약은 방글라데시와 다른 선박재활용 국가들의 환경기준 강화와 선박재활용 시설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〈그림1〉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보영상^{b)}



자료: IMO

■ 홍콩협약이 선박재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 존재

▶ 홍콩협약이 환경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^{c),d),e)}

- BIMCO(발틱국제해사협회)는 선박 재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홍콩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평가
- 전기 아크로를 이용해 철을 재생산하는 것이 조강을 생산할 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선박재활용은 순환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
- 특히 홍콩협약 당사국인 인도와 터키는 선박재활용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동시에 전기로를 사용하여 철을 재생산하는 국가임
- ICS(국제해운회의소)는 주요 선박재활용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의 협약 가입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선주들은 자신의 선박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장소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재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 논함
- ISRA(국제선박재활용협회)는 협정 발효를 환영하면서도 세계의 많은 선박들이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에서 재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2년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홍콩협약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

▶ 홍콩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견해 존재^{f),g)}

- 환경 NGO들은 홍콩협약의 규정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, 오히려 기존의 법과 노력들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
- 홍콩협약 발효 이전에 선박재활용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일반적인 유해폐기물에 대한 '오염자 부담원칙'을 명시한 UN 바젤협약, 바젤협약을 EU 국가의 특정 선박에 적용하고자 도입한 EU 폐기물규정(EU WSR), 그리고 홍콩협약을 EU 입법에 반영한 EU SRR(선박재활용규정)을 들 수 있음
- 비영리단체 Shipbreaking Platform은 폐선박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대해 친환경적이며 엄격한 관리기준이 결여된 홍콩협약은 바젤협약이나 최근의 SRR 보다 나을게 없으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강조함
-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해 단순히 국가 규정 준수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, 노동자의 건강 위험과 지역 환경오염과 밀접한 해변에서의 선박재활용 작업을 허용함
-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보호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부족
- 많은 해변 작업장은 이미 홍콩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집행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에

따르면 EU 재활용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됨

- 홍콩협정이 집행될 수 있는 국가는 폐선박의 기국과 재활용시설 국가에 한함
-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해변 작업장은 이미 홍콩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, 잔류유, 석면, 수은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고, 결국 노동자, 지역사회, 해안환경에 비용이 전가됨

IMO 홍콩협약, 선박재활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필요

- ▶ IMO 홍콩협약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의 규정 재검토 필요
 - EU SRR 체제에서 선주는 편의치적을 통해 규정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, 홍콩협약이 발효되더라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지만 여전히 편의치적을 통한 우회방법 존재
 - 선박재활용 시설에 대해 다량 발급된 홍콩협약 준수확인서에 대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환경이나 근로 안전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

정재호 전문연구원

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
(chungjh@kmi.re.kr / 051-797-4391)

참고 자료

- a) <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ages/WhatsNew-1948.aspx> (검색일 : 2023.09.13.)
- b)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hvx58xZgpU> (검색일 : 2023.09.13.)
- c) <https://www.bimco.org/news-and-trends/market-reports/shipping-number-of-the-week/20230516-snow> (검색일 : 2023.09.14.)
- d) <https://www.ics-shipping.org/press-release/ics-celebrates-the-hong-kong-convention-entering-into-force/> (검색일 : 2023.09.14.)
- e) <https://safety4sea.com/international-ship-recycling-association-expresses-concerns-over-the-hkc/> (검색일 : 2023.09.14.)
- f) <https://safety4sea.com/ngos-express-scepticism-over-hong-kong-convention-effectiveness/> (검색일 : 2023.09.14.)
- g) <https://shipbreakingplatform.org/hkc-fails-to-ensure-sustainable-ship-recycling> (검색일 : 2023.09.14.)